1-1.

스틱스 강 (건너뛰기)

지옥의 입구에서 얼마나 나아갔을까

지쳐 나가 떨어질 만큼 어둠을 헤집고 나오자 보인 것은 바다 같이 끝없이 펼쳐진 검은 물이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곳이 죽음을 맞이하는 관문이라는 것을.

물가에는 작은 배와 거대한 뱃사공, 그리고 배에 탑승하려는 죽은 이들로 넘쳐났다. 어느 쪽이건 흉물스러운 몰골, 악취, 스산한 기운이 이곳은 오로지 망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너. 못 탄다.”

망자에 어울려 배에 탑승하려던 나를 뱃사공이 막아섰다. 카론, 죽음을 인도하는 지옥의 뱃사공이었다.

“아니, 타겠습니다.”

“금화, 있나?”

그가 뱃삯을 바라며 검은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내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금화, 없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자 뱃사공은 얼굴을 찌뿌리며 배에서 노를 집어 들었다. 그때 나는.

리라로 공격을 막으며 반격태세를 갖추었다 (보스 배틀) / 리라로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했다 (건너뛰기)

리라로 공격을 막으며 반격태세를 갖추었다 (보스 배틀)

배틀 이후

“나약하다. 하지만 의지 있다. 타라.”

리라로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했다 (건너뛰기)

“금화만큼 좋다. 타라.”

1-1

스틱스 강 (튜토리얼)

지옥의 입구에서 얼마나 나아갔을까

지쳐 나가 떨어질 만큼 어둠을 헤집고 나오자 보인 것은 바다 같이 끝없이 펼쳐진 검은 물이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곳이 죽음을 맞이하는 관문이라는 것을.

물가에는 작은 배와 거대한 뱃사공, 그리고 배에 탑승하려는 죽은 이들로 넘쳐났다. 어느 쪽이건 흉물스러운 몰골, 악취, 스산한 기운이 이곳은 오로지 망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너. 못 탄다.”

망자에 어울려 배에 탑승하려던 나를 뱃사공이 막아섰다. 카론, 죽음을 인도하는 지옥의 뱃사공이었다.

“아니, 타겠습니다.”

“금화, 있나?”

그가 뱃삯을 바라며 검은 손을 내밀었다. 내가 금화 두 닢을 내려고 하자 뱃사공은 획 하고 금화를 낚아채 갔다.

“금화라니, 기쁘구나.”